



청고 스님과 그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벽예불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에 들었다.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8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에 선발된 미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발우공양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남탓 말고 ‘나’ 내려놓고 ‘Wake up’

깨어나라

광명선원, 8월 2~3일 풀브라이트 장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분노·걱정 등을 버려 놓는 연습은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수행인 것 같다.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 텐데 이번 템플스테이가 많은 도움이 됐다.” 푸(여·21)

“이번 프로그램에서 많은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쾌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명상을 거듭할수록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다.” 에밀리(여·24)

8월을 여는 첫 주말, 충북 음성에 위치한 광명선원에서는 영어로 이야기 하는 소리가 쉽게 들렸다. 독일계·아시안계·아프리카계 등 다인종으로 구성된 평균 나이 23세의 미국국적 학생들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 모였다.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8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재단에 선발된 미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는 풀브라이트재단의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경제학, 역사학, 생물학 등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재원으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중·고등학교에 원어인 보조강사로 2년간 파견된다.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한 마음선원 스님들이 대거 투입됐다. 안양 본원에서 청고·청동·해각·해늘·해형·해교 스님이, 광명선원에서 청강·청송·청훈 스님이, 제주지원에

서 해홍 스님이 지도 법사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안양본원 청년회 학생과 공양 담당 보살 등 10여명의 자원봉사자도 동참했다.

2일 첫날, 예상시간 보다 일찍 도착한 참가자들은 경내를 둘러 본 후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청송 스님의 집전으로 입재식이 거행됐고, 주지 청백 스님이 환영사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광명선원은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해나가는 도량입니다. 마음공부를 알려주는 대행 스님께서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인 참 나를 밝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선발된 美 우수장학생 52명 참가

춧불제·화엄놀이·발우공양 등 체험

“음식 인연 되새기는 발우공양 인상적”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몫과 맺어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곳 광명선원까지 왔으리라 생각되며, 템플스테이 체험을 계기로 자기만의 진정한 나를 찾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지도 법사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합장·절하는 법 등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익혔다. 명상에 들기 전에는 청고 스님의 특강도 있었다. 스님은 생활 속 모든 일이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명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들면 놓아버리세요.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나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멈추게 하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참가자들은 양초에 불을 켜고 ‘Buddha nature’를 정근했다.



청송 스님과 차담을 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회향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내면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 하루 24시간 동안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닦치는 모든 일이 수행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번 내면과 만나기 위해 집중하게 되니 이는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청고 스님의 법문을 새겨듣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에 들었다.

명상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도량을 둘러봤다. 한 남학생은 도량에 있는 불상을 보며 스님에게 “저 불상은 굽타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고, 대웅전에서 명상을 하고 나온 여학생은 자원봉사자에게 “한국말로 ‘상쾌하다(fresh)’를 어떻게 말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도량 곳곳에 있는 영탑과 요사채가 신기한지 연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스님과 마주치면 첫날 배웠던 합장 반배를 정성 들여 해보기도 했다.

저녁예불이 끝난 후에는 발우공양이 이어졌다. 청강 스님이 발우 공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송 스님이 시범을 보였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의 굶주린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공양하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밥과 찬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공양을 시작했다. 양 조절이 안됐는지, 찬을 더 가져다가 먹거나, 청수물을 다 마시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테드 쿠파(24·남)는 “발우공양을 할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하고 먹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음식을 먹기까지 많은 인연을 거쳐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하니, 또 지구촌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져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춧불제가 거행됐다. 청고 스님은 “보이는 물질의 춧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

을 밝히는 것이 춧불제”라며 마음의 불을 밝히는 뜻에 대하여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양초를 받아 ‘Buddha nature(자성 본래불)’를 정근하며 졸을 이어 도량을 돌면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밤 10시가 되었고, 모두들 취침에 들었다.

둘째 날인 3일 새벽 3시 30분, 참가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대웅전에 모여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옆에서 스님들이 지도하기 전에 자연스레 먼저 명상에 드는 모습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웅전을 나올 때는 정중히 합장 반배의 예를 올리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었다.

이어서 화엄놀이가 진행됐다. 선재동자가 밥을 구하러 떠나는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4개의 팀으로 나눠 △연꽃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명상을 차례로 경험했다. 여자친구를 위해 단주를 만드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이 부족했는지 명상할 때 조는 이들도 있었고, 스님에게 불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어서 청고 스님과 그의 질의응답 시간. ‘과거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마음공부를 통해 깨닫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만 하는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가?’ 등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질문에 청고 스님은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회향식과 단체사진 촬영 후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갔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히 대해준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해보려는 마음을 체험함으로써 한국 불교와의 인연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우든 씨앗이 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템플스테이였다.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호사는 15년 전부터 육임학습서와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육임 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학대학교’ (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방송 진실보도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또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 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킬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천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공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양법으로 일생 운영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찰는가? 뱀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애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손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움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마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⑤ 육임부동산매매시기(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옳을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따)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입니다.

⑧ 신형 절차
검색창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9시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이내각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호사 / 이내각 부총장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